

오다야마모토 유적

아오모리현 북부의 쓰가루 반도에 있는 이 선사 시대 유적에서는 석기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토기 몇 점도 발굴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굴된 제작물은 선사 시대 일본 북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구석기 시대 말기를 거치며 어떻게 변화하고 조몬 시대 초기(기원전 13,000 년)에 이르러 어떻게 한 곳에 정착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석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오다야마모토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로는 도끼나 칼 등과 같은 날붙이, 동물의 가죽을 벗기거나 나무를 세공하기 위한 도구, 그리고 사냥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뾰족한 석기 등이 있습니다. 크고 초보적인 도구부터 기술적으로 세련된 날붙이나 화살촉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와 크기가 매우 다양한 이들 석기는 사슴 등 빠르게 움직이는 동물을 사냥할 목적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석기는 점판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점판암은 근처 강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당시 홋카이도나 간토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지역적인 기술 등 다양한 석재 가공 기술이 이곳에서도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석기와 가공 기술의 다양성은 다른 지역이나 집단과 중요한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토기,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

오다야마모토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 편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른 시기의 것입니다. 같은 토기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토기 편에서 탄화물이 부착되었던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탄소 연대를 측정한 결과 토기 편이 기원전 13,000 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유럽이나 중동에서 토기가 사용되었던 시기보다 수천 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조몬 시대의 ‘조몬(縄文)’이라는 명칭은 ‘새끼줄(繩)을 굴려서 덧댄 문양(文)’이라는 뜻으로 이 새끼줄 문양은 조몬 시대 토기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다야마모토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 편에는 이 새끼줄 문양이 없습니다. 원래 조리 등 순수하게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었던 토기는 운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기가 출현했다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는 정주형 삶의 방식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합니다. 오다야마모토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편은 조몬 시대 극히 초기의 것으로서 이 시기부터 일본인들은 한 곳에 정착해 살아가며 생활을 영위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출토품을 볼 수 있는 장소

토기 편과 석기는 소토가하마마치 오야마 후루사토 자료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다야마모토 유적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자리한 이 자료관은 원래 초등학교로 사용되었던 건물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중 일부는 영어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외 주변 볼거리

쓰가루 반도에는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링크]과 다고야노 패총[링크] 등 다양한 조몬 시대(기원전 13,000 년~기원전 400 년) 유적이 있습니다.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에서는 가장 세련된 형태로 보여지는 조몬 토기 몇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일본 북부의 유적지를 방문하면 조몬 시대와 당시 마을의 발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